

문민정부의 산물, 신세대 여성이미지

강성원 / 미술평론가



▲ '중세의 귀족아가씨가 연상되는 고급스런 연출법' 이라고 설명이 붙은 여성잡지의 이 패션 사진은 신세대 젊은 여성들을 위한 패션제안에서 중세귀족의 여성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냉전체제의 붕괴로 요약될 수 있는 90년대적 현실상황의 대두는 발전도상국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조건과 맞물려, 사회 모든 국면의 세계화라는 이념이 우리의 마지막 남은 갈 길이자 궁극

의 길처럼 보였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이념은 역사의 전진을 위한 하나의 깃발이기에 앞서 이미 우리 현실의 큰 동력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제3세계 국가들에게 있어 경제발전의 전진은 현대적 산업국가로서의 완성된 형태로 나아감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대중매체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산업사회적

사회상을 만들어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상을 향한 사회발전의 논리는 곧 세계화가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80년대는 대중산업 부문의 고도성장과 아울러 문민정부의 성립, 사회문화적 현실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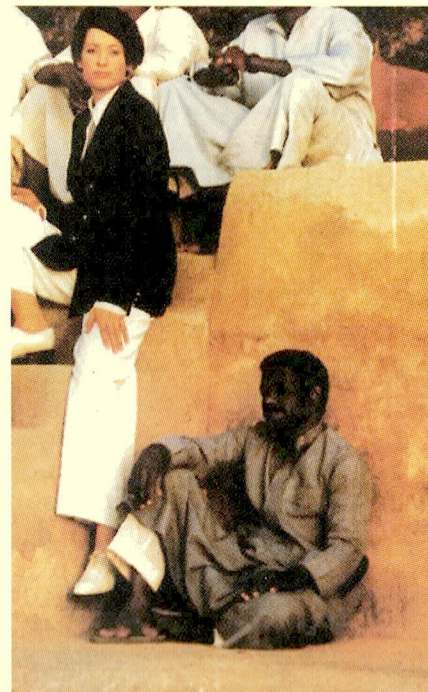
에서의 이념적 적대구조의 해소가 80년대에 이어 21세기를 바라보는 90년대 우리 문화의 정치 경제적 현실 토대이기에, 즉 이것이 90년대의 역사적 조건이기에 90년대의 문화시장은 현재 세계화를 지향하는 대중매체의 문화와 세계의 자본주의 시장을 전제로한 순수 예술시장의 세계적 상품화를 위한 구조로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0년대 이후 꾸준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 대중매체 산업의 발달과 90년대 문민정부의 출범과 아울러 사회문화적 여러 현상들에 대해 해방 이후 지속되어 온 공간적 차원의, 혹은 대중심리조작 차원의 검열제도 비교적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중문화적 가치관은 세계화에 걸맞는 양상을 띠게 된다. 즉 세계자본주의의 보편적 대중문화가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되며 아주 일반적인 대학문화 교양수준을 우리 대중전체의 문화적 가치관의 가장 통속적이고 대중적인 기반

으로 전제하게 되는 파라다임이 설정된다.

90년대 들어 자주 등장하는 신세대 혹은 X세대라는 개념은 실상 문민정부 들어 문민정부의 성격에 상응하는 여러 사회적 변화들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변화된 사회가 방출하기 시작하는 대중문화의 새로운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개념일 뿐이다.

신세대는 구세대와는 달리 어떤 비합리적이고 자유분방한 개성을 추구하는 것



◀이 광고에서는 백색인종의 귀족가문의 품격과 교양과 합리주의를 인간 이상의 최고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광고이다. 베이비 교육에서 가문과 혈통의 강조는 인류의 이상이요, 현대여성성의 생활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아니라 구세대보다 합리적이고 그래서 개인을 중시하게 되고 구세대가 당대의 정치역사적 현실조건에 갇힌 세

대라면, 신세대는 그런 구대의 연한 제도의 검열 혹은 탄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 세대상을 나타낸다. 보다 합리성을 중시해가는 보다 대중일반의 지적수준이 높아진 사회의 젊은이들을 상징하는 언어가 신세대 개념이다.

신세대 여성 이미지는 교육받은 여성의 이미지이다. 합리적 교육을 밟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할 줄 알고, 고급 상품문화와 교육에 의해 삶을 디자인하는 감각이 일반적으로 높아지게 된 세대의 여성이미지이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결국엔 자신이 지배한 식민지에서 자신을 베풀 줄 알고, 노예를 해방시킬 줄도 알 만큼 배워서 자신있는 그런, 교양과 자유와 해방의 여성귀족의 이미지와 연결된다.